

# 전남 출산율 1명 넘어...영광 1.87명 전국 1위

###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 출생아수·조출생률 모두 최저...35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

지난해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0.81명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전남 지역 출산율은 1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7명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의 출생아 수는 26만명대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반면, 35세 이상 출산율은 작년보다 늘었고 특히 40대 초반 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

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로 줄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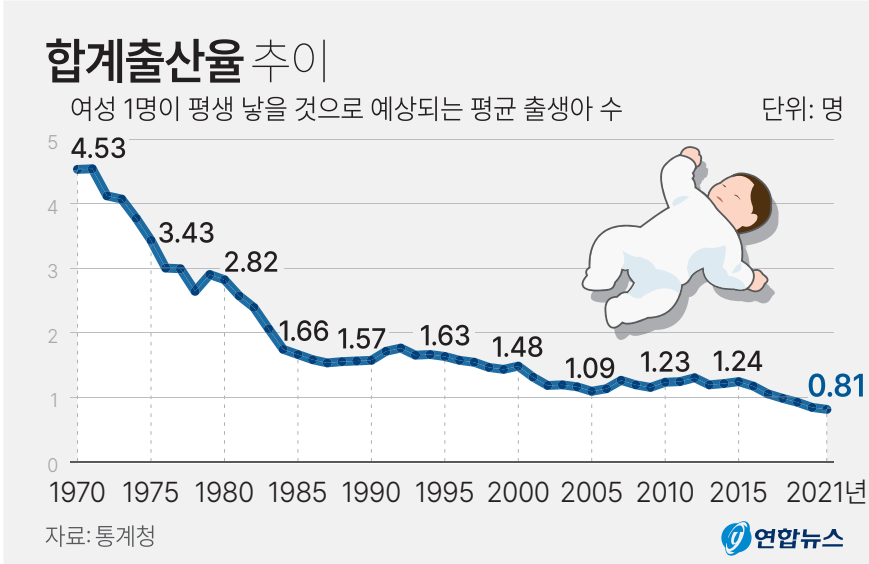
이후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5.1명에 그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연령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76.1명)도 1년 새 출산율이 2.9명 감소했다.

반면, 30대 후반(1.2명), 40대 초반(0.5명) 등 35세 이상 여성 출산율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7.6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4세로 올

라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지역 별로 보면 출생아 수는 광주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도 별 출산율은 세종(1.28명)이 가장 높았다. 전남(1.02명)도 출산율이 1명을 넘겼다.

반면, 서울 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평균 출산 연령 역시 서울이 34.2세로 가장 높았으며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평균 결혼생활 기간도 서울(2.7년)이 가장 길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을 밑돌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인 시·군·구도 62개에 그쳤다. 특히 부산 중구(0.38명)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광군(1.87명)이었다. /양시원기자·연합뉴스

### 전남도 '출산TV' 동영상 인기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원사업 홍보

전남도가 출산시책을 누구나 쉽게 알도록 홍보 동영상 시리즈인 '출산TV'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출산TV'는 마녀에게 의뢰해 공무원과 마녀가 함께 출산시책을 흥미롭게 홍보하는 내용이다. 인기 웹드라마인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를 패러디했다.

지금까지 제작된 '출산TV'는 2편으로 지난 7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편이 방영됐고, 8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편을 방영 중이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편은 홍보 동영상에 방영된 지 1주 만에 조회수가 1천회가 넘는 등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3편까지 제작해 유튜브 채널 '옴므전남'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출산시책을 도민이 보다 쉽게 알도록 적극 홍보해 저출생 극복과 함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정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 의견수렴 중"**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연합뉴스

**▶1면 '흑산공항'서 계속**

2009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검토하면서 본격화된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천833억원을 투입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62만4천㎡ 부지에 길이 1.2km,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배편 등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내로 단축돼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흑산공항 건설은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경제적 타당성, 철새 보호 대책 강구, 조류항공사 충돌 가능성, 항공기 사고 가능성, 국립공원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 또는 잠정 중단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남을 방문해 흑산공항 건설을 약속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흑산공항 건설 추진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 보이면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여러 건의 분쟁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현재 부처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올해 안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道, 세계적 에너지 이슈 선제 대응 분주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기업유치 전략회의의 정례화

전남도가 유럽연합(EU) 탄소노미, 탄소국경세 등 세계적 에너지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업유치 전략회의 등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에너지·전략산업·일자리·기업도시 등 경제 관련 부서와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에너지 전문연구기관과 전략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유럽연합탄소노미, 탄소국경세 등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전남의 산업 여건 분석을 통해 국고 건의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

업 추진 필요성, 기업 입장에서 전남 지역 투자 당위성 등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체계적인 예산 확보 활동, 기업투자 유치 활동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한 도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과 반도체 특화단지·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 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 연관 지자체·혁신기관과 협업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동 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매일 각 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분기별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정기 개최해 필요한 전략을 단기, 중장기 목표로 세분화하고 부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세부 액션플랜을 마련,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유럽연합탄소노미 등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전남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제도·정책적 설득 논리를 마련해 에너지자원을 선도하고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1면 '이재명 방탄'서 계속**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팬덤을 앞세워 당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전준위와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전혀 공론화되지 않다가 19일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지는 등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타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 등 비이재명계 의원 25명은 이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이를 추진한 당 지도부는 이미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권리당원 투표의 근거를 당헌에 마련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후보와 주변에서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이날 부결됨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헌 개정을 추진해 온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처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비대위에서 논의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논의할 것인지 속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사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방, 월세빵방,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절차차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